

##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콘셉트로 적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임 병 수 · 김 정 희\*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상학과 석사과정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진행한 패션디자인 연구이다. 이는 브랜드 디자인 진행과정에서 콘셉트 도출 과정을 표본화 하여 제시함으로써, 각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인 전개 프로세스 중 도입부인 메인 콘셉트를 합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다문화적 코드를 함양할 수 있는 콘셉트 표본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선정하여, 클레오파트라 생존 시기 당대의 시대상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 형성과정을 검토해보고, 현대여성으로서 클레오파트라는 어떠한 여성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해석해보았다. 여기서 추출된 이미지들을 콘셉트로 정리하여 3가지 방향성을 제시한 후, 이렇게 정리된 콘셉트와 함께 시대에 부합하는 패션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2012년 트렌드를 분석하여 적용시켰다. 클레오파트라를 통해 도출한 3가지 이미지는 첫째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크로스오버 이미지, 둘째 남성을 능가하는 리더십과 지력을 지닌 페미니스트 이미지, 그리고 셋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의 관능적 이미지이다. 이러한 클레오파트라 콘셉트의 3가지 방향성을 적용하여 고대이집트 쉬스스커트(sheath skirt)와 현대의 테일러드 재킷의 크로스오버 디자인, 고대이집트의 웨세크(wesekh)와 현대의 고어드원피스 크로스오버 디자인, 그리스 민속복식 새쉬벨트(sash belt)와 현대복식 드레스셔츠의 크로스오버까지의 3가지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콘셉트 도출을 위해 하나의 키워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역사적 조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성을 정립해야 하며, 여기서 도출된 콘셉트는 반드시 선행 트렌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합성되어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콘셉트 도출, 트렌드 분석 및 적용, 그리고 디자인까지의 과정을 진행함으로써 콘셉트 도출과정의 표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크로스오버, 페미니스트, 관능미, 클레오파트라, 콘셉트 도출

이 논문은 경원대학교 연구지원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접수일: 2010년 6월 3일, 수정논문접수일: 2010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6일

교신저자: 김정희, jhkim0320@kyungwon.ac.kr

## I. 서론

### 1. 연구내용 및 목적

현대인은 복잡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identity)를 강력히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니즈(needs)를 유발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영이 현대 디자인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패션산업 분야에서는 다양한 콘셉트의 브랜드들이 속출, 각 브랜드들은 자신들만의 고유 구매층을 타깃으로 하여 브랜드 콘셉트에 맞는 의류를 디자인 및 생산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 디자인 분야에 있어 콘셉트 도출은 패션뿐 아니라 여타 디자인 산업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콘셉트 도출과 함께, 이러한 콘셉트하에 진행된 패션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최근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빠른 트렌드 주기 속에서도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가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함이고, 이러한 정체성에서 출발된 콘셉트와 각 시즌의 트렌드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디자인 콘셉트에 있어서 단지 모티브의 일부분을 차용하거나 해체시켜 디자인에 첨가하는 것은 1차원적인 발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2차원적인 모티브의 철학적 접근과 이러한 발상은 제3세계 국가들의 디자이너에게 패션산업 범주의 헤게모니를 극복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함에 있어 좋은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본의 이세이 미야케가 기모노의 단편적 차용에 그친 디자인이 아닌, 기모노의 평면적 형태가 인체에 입혀져 조형적 형태로 변모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플리즈플리즈 원단과 이를 활용한 디자인을 내

어놓은바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 기인하여 예를 들어보았을 때 고대이집트 복식이 단순 적용된 디자인보다는 이집트 파라오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전개가 2차원적인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클레오파트라(Cleopatra VII)를 콘셉트로 한 이미지 도출, 그리고 디자인과정까지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러한 새로운 콘셉트 도출 시에 모티브와 이미지의 사회적 통용은 그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론적 근거를 들어 이러한 추상적 이미지를 규명하고, 도출된 이미지를 현대 트렌드에 접목시켜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하였다. 글로벌 지구와 각국의 그 문화적 경계가 허물어져 서로 전파·융합된 사회 속에서 디자인 상품이 동서양의 미적 의식을 함께 내포 할 수 있다면 여러 문화권 구매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감각의 스타일을 제시함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적 스타일 코드를 제시하기 위하여 동서양의 문화를 잘 대변 할 수 있는 역사 속 여성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선정, 그녀의 이미지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또 디자인 전개에 있어 2012년 S/S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셉트 전개를 통해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 디자인을 제시하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글로벌시대의 다문화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대학원 과정 4인의 전문가 집단 토론을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선정하였고,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당대 클레오파트라가 현존하던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현대에서 해석된 클레오파트라라는 한 여성의 문화적 시의성을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작품과 클레오파트라 소재의 영화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선행연구로 패션범주에서는 윤덕훈과 조규화(2009)<sup>1)</sup>의 클레오파트라

관련 연구가 있었으며, 문학계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나타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에 대하여 셰익스피어 학회 등에서 무수히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콘셉트화하여 디자인에 적용시킨 연구는 미비한 실정하기에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코드화시켜 정리하였고, 여기서 정리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를 현대사회의 여성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당대와 현대사회의 시대성을 비교 분석하고 모던 디자인의 양식적 특성을 첨가하여 콘셉트를 제시하였다. 또 이렇게 재탄생 된 클레오파트라라는 코드를 2012년 패션 트렌드와 접목시켜 2012년 춘하 시즌(season) 클레오파트라 콘셉트의 다목적 이브닝웨어(evening wear)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 II. 클레오파트라 이미지 분석

본 연구에서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역사, 문학, 영화예술 세 가지 관점을 범위로 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녀에 대한 이미지를 규정하고 디자인의 토대를 살펴본다.

### 1. 역사에 나타난 클레오파트라

고대 이집트의 역대 통치자 중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Cleopatra VII: B.C.69~B.C.30)는 본디 그리스 사람 이었으나 당대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가 로마를 통치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이집트는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Ptolemaic dynasty)가 지배하던 시기였고, 프톨레메오 12세(Ptolomeo XII)의 3번째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이 왕조의 후손으로써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다.<sup>2)</sup> 그녀는 음악, 문학, 정치, 수학, 천문학, 의학 등 다방면에 능통했으며 지성이 풍부한 여성이었다고 현세에 전해지고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죽음 이후 18살에 첫째 남동생인 프톨레메오 13세와의 결혼 후 실질적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지만 왕권을 향한 동생들의 도전을 방지하고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내연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남편인 남동생과 여동생이 합세하여 클레오파트라의 왕권에 대항하였고 이로써 발발된 전쟁 속에서 남편인 남동생이 죽자 여성의 단독 집권이 힘든 이집트 당대의 시대상에 의해, 그 아래 막내 남동생과 다시 결혼을 한다. 줄리어스 시저 사후 다시 남편인 남동생을 독살하여 죽이고, 시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파라오의 자리에 앉혔다. 이후 로마의 장군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와 내연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나, 로마와 적대시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결국 비운의 죽음을 맞게 된다.<sup>3)</sup> 요약하면, 그녀는 그리스 혈통의 여인으로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으며, 당시 강대국 로마의 권력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왕권을 향한 집착에서부터 출발한 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우스와의 내연관계는 단지 전리품으로서의 그것이 아니었다. 로마시대 당대 권력자로서 두 사람의 위치는 실질적으로 모든 로마여성을 탐할 수 있는 자리였다. 수많은 로마의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매력을 더 강력히 어필(appeal)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유추해볼 수 있는데, 거의 화장을 하지 않던 로마여성들에 반해 이집트의 오랜 화장술로 치장된 클레오파트라의 외형, 그리고 이집트의 이국적 문화가 만들어낸 신비스러운 느낌의 장신구와 의복이 로마남성인 시저와 안토니우스를 매료시키는데 큰 몫을 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sup>4)</sup>

## 2. 매체에 나타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 분석

클레오파트라라는 동서양 어떠한 관점으로 봐도 역사 속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여성상은 틀림없기에 수세기 동안 많은 예술가들과 작가들의 강한 영감원으로 작용해왔다. ‘여신과 창녀의 가장 유명한 전형’이라는 정의를 내린 애니아 룸바(Ania Loomba)에 의하면 각 문화의 당대 관념과 몇 세기에 걸쳐 아직도 변모 하고 있는 신화 만들기의 양가적인 작용에 의하여 그 이미지가 도출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메어리 해머(Mary Hamer)는 각 시대의 헤게모니 속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가 변화하거나 덧붙여지며 새로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의 내었다고 주장하며, 그녀를 소재로 다룬 작품들에서 공통분모로 제시 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없음을 밝힌다.<sup>5)</sup>

### 1)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분석

셰익스피어는 1607년경 작품으로 1623년에 출간된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를 통해 남성을 능가하는 지력을 겸비한 여인으로, 매력적인 한 여성으로, 그리고 비운의 여주인공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클레오파트라를 재조명하여 종래의 부정적 인식을 탈피시킴과 동시에 그녀의 성격을 창조시켰으며 이러한 셰익스피어의 의도와 맞물려 페미니스트들은 그녀를 남성 중심세계의 도전하는 여성 지도자로 해석함으로 그녀의 이미지는 부정적 시선에서 긍정적 시선으로 변모하게 되었다.<sup>6)</sup>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연구한 학자들은 셰익스피어 당대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이국적인 고대 이집트 문화에 대한 흥미 그리고 고대사회의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파라오의 대한 동경, 그리고 여성에게 중요시 되던 정숙성의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고 상호작용하여

셰익스피어 시대의 새롭게 해석된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로 재현되었음을 설명한다.

현대인들이 인식하는 클레오파트라라는 뛰어난 외교술을 겸비한 통치자이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까지도 매료시킨 매혹적인 요부로 작용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셰익스피어 시대 이후 많은 시간을 걸쳐 그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모 한 것을 알 수 있다. 각 시대는 그녀를 미화된 여신으로 혹은 창녀로 표현하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그녀의 인물성은 시대가 만들어낸 이미지며 앞서 언급한 해머의 주장처럼 그녀의 단일적인 판단이나 통일된 확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대이집트의 파라오이자 로마의 영웅들을 매료시켜 파멸로까지 이끌었던 사황은 어디까지나 확인 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지적인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이자 매혹적인 팜프파탈(femme fatale)로서의 여성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조명하고자 한다.

### 2) 영화에서 나타난 클레오파트라 분석

처음 제작된 ‘클레오파트라’를 주제로 한 영화는 1899년에 제작된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elies) 감독의 4분짜리 단편이며, 클레오파트라 주제의 영화는 현재까지 20편이 넘게 제작되어,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테다 바라(Thea Bara), 클로데트 콜베르(Claudette Colbert), 비비안 리(Vivien Leigh) 등 수많은 유명 여배우를 탄생시키며 발표되어왔다.<sup>7)</sup>

1946년 작품 비비안 리 주연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Caesar And Cleopatra)』<그림 1>에서는 간교하고 악랄한 이미지가 부각되었고 1999년 작품 『클레오파트라(Cleopatra)』<그림 2>에서는 칠레 산티아고 출신의 레오노어 바렐라(Leonora Varela Palma)가 주연을 맡아, 이전의 클레오파트라에 비하여 남미의 여인으로서 이집트의 관능미를 효과적으로 표

현하였다. 또 모니카 벨루치(Monica Bellucci)가 출연한 『미션 클레오파트라(Asterix & Obelix: Mission Cleopatre)』 <그림 3>에서는 콧대 높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으로 희극적으로 다뤄지기도 하였다.

1963년 미국에서 조셉 L. 맨케비츠(Joseph Leo Mankiewicz)가 감독한 영화 『클레오파트라(Cleopatra)』 <그림 4>는 당대 최고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Elizabeth Rosemond Taylor)가 출연, 의상감독 아이렌 샤라프(Irene Sharaff)는 75벌 가량의 의상을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갈아입혀 1964년 제3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의상상을 수상하였다. 영화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복식인 칼라시리스(kalasisiris), 쉬스스커트(sheath skirt), 튜닉 뿐 아니라 로마식 투니카(tunica)를 입고 등장하기도 한다.

조셉 L. 맨케비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지적인 여성이자 당차고 야심 가득한 여성 지도자로서 조명했으며, 당대 최고 여배우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출연을 통해 대중들에게는 클레오파트라의 미적인 측면이 강하게 어필될 수 있었다.

수많은 클레오파트라 소재의 영화들을 두루 살펴보면 모두가 아름다운 관능미를 소유한 매력적 여왕으로서 그녀를 다루었다는 공통분모를 담고 있다. 영화 속 여주인공은 아름답게 표현되기 마련인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영화 속 여주인공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클레오파트라의 그것은 좀 더

관능적인 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특이점이 눈에 띈다. 영화라는 예술양식의 도구적 특성상 가시적이고 자극적인 측면의 강조가 흥미유발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며, 서구에서 제작된 영화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것만큼 동양적인 신비감과 그 신비감 하에서 고조되는 관능적인 매력을 표현하는 것이 클레오파트라의 지적인 매력이나 인물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이유에 기인한다.

### 3. 클레오파트라의 현대적 이미지 도출

클레오파트라 콘셉트를 현대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선 현대적 디자인의 모체인 모던 디자인(modern design)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모던의 어원은 중세 시대 라틴어 모레르누스(modernus)에서 유래한 라틴어 모도(modus)에서 나왔다. 이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현대의’ 혹은 ‘근대의’ 라고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모던이라는 함의 시대에 맞춰 항상 변화하는 스타일로써의 개념이다. 예컨대 80년대 모던 디자인을 21세기에 들어 모던한 디자인이라 칭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진 미적 의식이 반영된 디자인을 우리는 모던한 디자인이라 칭한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보이는 모던 디자인은 독일의 종합조형학교인 바우하우스(Bauhaus)



<그림 1> 비비안 리, 『Caesar And Cleopatra』, 1946  
(출처: <http://movie.naver.com>)



<그림 2> 레오노어 바켈라, 『Cleopatra』, 1999  
(출처: <http://movie.naver.com>)



<그림 3> 모니카 벨루치, 『Asterix & Obelix: Mission Cleopatre』, 2002  
(출처: <http://movie.naver.com>)



<그림 4> 엘리자베스 테일러, 『Cleopatra』, 1963  
(출처: <http://movie.naver.com>)

에서 시작된 기능주의적 디자인이 주를 이룬다. 과거 데코라티브 디자인(decorative design)과는 달리 최대한 간결한 장식과 여유가 있고, 기하학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이러한 모더니즘시대의 기능주의의 관점은 디자인과 건축분야를 통해 정착되어 지금까지도 모던함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곤 한다.<sup>8)</sup> 현대패션분야에서도 기능주의와 실용주의적 관점은 전위적인 의상에 있어서도 필히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작용한다.

또 수세기 동안 보였던 건축사와 복식사의 연관성에서 알 수 있듯이 건축과 패션은 공간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의식주에 있어 그 외형이 단기 소모되어 일시적으로 보이는 식문화와는 달리 당 시대에 시작적으로 보여지는 형태 보존성 양식으로써 배경인 건축과 인간의 의복이 그 형태적 특성과 양식이 서로 부합되어지지 않으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여 건축과 패션은 항상 연관성을 띄고 밀접하게 작용해왔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 현존시기의 이집트의 건축물과 현대사회의 건축 비교는 현대적으로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를 풀어나가는 또 다른 토대가 될 수 있다. 클레오파트라 현존시기인 기원전 30년경까지는 대표적으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등의 건축물과 함께 각종 흙벽돌조(土壁石造), 석조 주거양식이 혼재되었던 시기이다. 이집트 이외에 그녀는 로마에 상주하기도 하였기에 오로지 시대적 접근을 취하여 당시의 헬레니즘 시기 건축 양식을 살펴보면, 당시의 건축물은 초인간적 규모를 지향하였으며 내부 공간의 독창적인 발전이 시작되어 비교적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었던 시기로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는 풍경을 지배하는 주중 관계의 입장에서 장대함을 과시하던 건축물이 많이 보인다고 요약된다. 반면 현대의 건축물은 주변 자연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들과의 조화도 매우 중요시하며, 내적으로는 기능주의적이

고 실용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

이에 현대적인 클레오파트라 성향의 여성은 현대 건축물과의 연관성에 의하여 주변 환경을 압도하는 과시형 의복보다는 주변과의 조화가 가능한 의복, 그리고 기능주의적 측면에 영향을 받아 실용적인 의복을 선택할 것이라 유추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다방면적 정리를 통하여 콘셉트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콘셉트 도출을 위해 하나의 키워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역사적 조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성을 정립해야 한다. 따라서 ‘클레오파트라’라는 키워드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여보았고, 문학과 영화예술에서 그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확인해본 후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런 다방면적으로 고찰된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는 첫째, 다양한 문화를 접한 여인이며 둘째, 남성을 능가하는 지력의 소유자, 세 번째로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서 이미지가 정리되었다.

#### 1) 다양한 문화의 혼재 - 크로스오버 이미지

지리학적으로는 아프리카에 속하나, 문화와 종교적으로는 중앙아시아(중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는 그리스혈통으로, 그녀가 속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집트는 다양한 출신지의 인종이 서로 공존하던 헬레니즘 시대의 외래 왕조였다. 또 그녀는 이집트의 전통을 지켜내면서 주변국인 로마와도 가까운 태도를 취하며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런 그녀의 환경은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도출될 법한 서구문화와 아시아문화의 혼합이라는 코드를 생성하였다. 그녀의 삶은 그리스적이고, 로마적이면서도 가장 이집트적인 삶이었다. 이를 이용하여 범국가적 다양한 복식문화요소의 차용과 혼재를 통하여 새로운 크로스오버 이미지를 창출한다.

## 2) 남성을 능가하는 리더십과 지력 - 페미니스트 이미지

여자를 교육하지 않던 헬레니즘시대의 여성이었으나, 이집트왕족의 일원으로서 아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클레오파트라라는, 이집트의 학문과 함께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학문도 함께 학습할 수 있었다.<sup>9)</sup> 각종 학문에 능통했으며, 언어에 있어서도 민간 이집트어는 물론 마케도니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시리아어, 미디어어, 파티리아어도 능통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배경을 축약하여 지적인 여성으로, 리더십을 갖춘 당당한 여성으로 코드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업무환경에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여성인 페미니스트의 현대적 이미지로 재해석되었다.

## 3)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성 - 관능적 이미지

또한 그녀는 남성을 능가하는 뛰어난 지력과 동시에 남성 중심 세계에 도전하는 적극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으로서 자신의 매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가장 매력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탁월한 여성이었다고 선행연구자들은 말한다. 이러한 부분을 업무시간과 여가시간 모두에서 주목 받을 수 있는 다목적 이브닝 웨어로 디자인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건축사적 비교분석에 따라 클레오파트라를 현대적으로 재창조 시 주변 환경과 괴리감을 띄는 과시형 의복보다는 적절히 주변 환경과 조화 가능한 의복이 적절함으로 지나친 디테일은 배제하도록 한다.

## III. 클레오파트라 이미지의 디자인 전개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도모하고, 남성을 능가하

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으로, 또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동시에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성으로 이미지를 도출하였지만 디자인작업 시 트렌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으로 2012년 패션 춘추분기 유행경향을 분석하여 접목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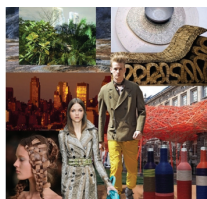
### 1. 2012 S/S 패션 트렌드 분석

트렌드를 분석하는 각종 연구기관은 삼성디자인, 퍼스트뷰코리아, 인터패션플래닝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삼성디자인에서 제시한 2012 S/S 트렌드를 기준으로 요약 후 클레오파트라 메인 콘셉트와 부합시켰다.<sup>10)</sup> 2011년 2012년 추동 분기가 도전적 변화(new defiance)의 큰 테마아래 시즌 트렌드가 진행되었다면 2012년의 춘하 분기는 공기 같은 가벼움(breath of air)<그림 5>, 신 세계주의(new cosmopolitanism)<그림 6>, 감성의 재발견(emotional re-discovery)<그림 7>, 진화된 새로운 자연(evolved, new nature)<그림 8>, 향락주의(epicureanism)<그림 9> 5가지의 콘셉트로 대표되는 실리적인 상상(practical imagination) 테마로 트렌드가 진행될 것이라 삼성디자인에서 예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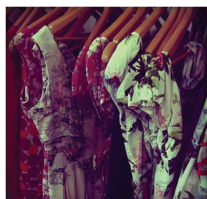
이미지의 모호성을 구체화 하여보면, 첫 번째로 제시한 ‘공기 같은 가벼움’에서는 섬세한 외형과 심플해진 스타일을 제시하며 감성을 표현하고 이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경제성을 추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신 세계주의’는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경제와 기후의 강한 위기에 대해 문제성을 각인하고, 이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계주의에서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세 번째의 ‘감성의 재발견’에서는 감성의 확대를 통하여 진지하고 차분한 분위기인 수작업적인 느낌, 옛 것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서정성을 표현한다. 네 번째 ‘진화된 새로운 자연’은 자연에 대한 관심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1차원적인 가시적인 자



<그림 5> breath of air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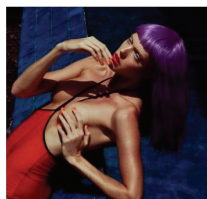
<그림 6> new cosmopolitanism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7> emotional re-discovery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8> evolved, new natur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9> epicureanism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연뿐 아니라 2차원적인 미시적 자연까지도 표현된다. 다섯 번째는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현실에 충실한 ‘향락주의’로서 역동적 발전을 이룬 60, 70년대의 미학이 새롭게 해석되고, 휴양지의 여유로움을 표현하거나, 혹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각 극대화하여 강조된 매력을 어필한다.

이러한 5가지 범주의 콘셉트 중에 2가지 콘셉트를 차용하여 모던 클레오파트라 콘셉트와 조화시켜 디자인을 진행했다. 신 세계주의 콘셉트를 통해 동양의 복식 특성을 적용하고, 향락주의 콘셉트를 활용, 감각적이고 여성적 매력이 극대화된 디자인을 메인 콘셉트와 부합시켜 디자인했다.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 다른 콘셉트도 활용될 수 있으나, ‘여신과 창녀의 가장 유명한 전형’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만큼 클레오파트라의 콘셉트를 풀어내기에, 문화적 혼재, 그리고 극대화된 치명적 매력이라는 두 가지 범주 하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었다.

## 2. 디자인 및 작품설명

관능적인 다목적 이브닝웨어를 주요 아이템으로 설정하여 고대이집트 쉬스스커트와 현대의 테일러드 재킷의 크로스오버, 고대이집트의 웨세크와 현대의 고어드원피스 크로스오버, 그리스 민속 복식 새쉬벨트와 현대복식 드레스셔츠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한 작품 3작장을 디자인하였다. 업무환경과 여가시간에 다목적으로 착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2년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목받지 못한 문화권 복식의 차용과 관능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노출과 인체에 피트되어진 바디컨서스 실루엣으로 작업하였다. 세 번째 디자인인 그리스민속요소와 현대의복의 크로스오버 디자인작품에서는 단지 시공간적 크로스오버 뿐만 아니라, 남성 클래식 복식인 드레스셔츠와 여성의 A라인 실루엣 원피스를 혼합하여 남성과 여성의 크로스오버 또한 시도하였다.



<그림 10> 쉬스스커트  
(출처: <http://www.google.com>)





<그림 11> 웨세크  
(출처: 「클레오파트라의 복식과 상징성」, 2009, p.69)



<그림 12> 새쉬벨트  
(출처: 「세계각국의 민속의상」, 2002, p.181)



<표 1> 디자인 1

디자인 1				
드로잉	도식화 앞	도식화 뒤	소재 및 색상	컨셉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드리프 윗부분부터 시작되는 테일러드 자켓 응용부분의 소재는 얇은 울 소재.</li> <li>+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부분은 면과 모달원단을 혼용한 비교적 가벼운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스스커트의 어깨끈 부분을 칼라라펠로 응용하여 고대 이집트복식과 현대의 테일러드 수트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다</li> </ul>
				

또 두 번째 디자인 고대이집트 웨세크와 현대의복의 크로스오버 디자인작품에서는 원피스 위에 블레로 형식의 5부 자켓을 코디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시에는 재킷과 함께 착용하여 업무시 T.O.P.에 적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가시에는 위의 재킷을 탈의하여 한결 여유롭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마지막 세 번째 디자인 그리스민속요소와 현대의복의 크로스오버 디자인작품에서는 새쉬벨트의 뒷 여밈 부분에서 업무시에는 밴드형 패스너를 연결하여 착용하고, 여가시간에는 스카프를 꿰어 묶어 연출함으로 2012년 향락주의 콘셉트에 따라 휴양지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패미닌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패미닌한 요소와 남성 클래식복식인 드레스셔츠의 크로스오버는 남성과 여성의 크로스오버를 한층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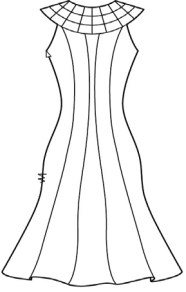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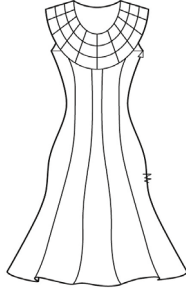


1) 디자인 1 - 고대이집트 쉬스스커트와 현대의 테일러드 재킷의 크로스오버(표 1) 쉬스스커트<그림 10>11)의 응용디자인으로서, 쉬

스스커트의 어깨 끈 부분을 테일러드 수트(tailored suit)의 칼라라펠(collar lapel) 디테일로 변경하였다. 현대적 의복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뒷부분은 테일러드 수트의 변형으로 솔더까지 넓게 좌우로 파인 형태이며, 어깨부분은 현대식 치파오형 솔더로 디자인하였다. 또한 쉬스스커트의 느낌을 주기 위하여 앞판에는 라펠의 끝부분을 아래의 스커트 부분까지 연장하였고, 가슴부분에는 소재에 주름이 잡힌 디자인으로 블라우스와 비슷한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였다. 고대이집트의 쉬스스커트와 현대복식인 테일러드 수트의 혼용으로 크로스오버(crossover)를 시도하였고, 테일러드 수트와 블라우스 느낌으로 커리어적 이미지를 표출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몸에 피트(fit)되어진 실루엣과 적당한 노출로 관능미까지 연출을 시도하였다.

2) 디자인 2 - 고대이집트의 웨세크와 현대의 고어드원피스 크로스오버(표 2)

고대 이집트의 목장식인 웨세크<그림 11>12)를 응용한 디자인이다. 목과 흉부에 걸친 웨세크 응

<표 2> 디자인 2

디자인 2				
드로잉	도식화 앞	도식화 뒤	소재 및 색상	컨셉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집트 웨세크 목장식 부분은 면 소재 위에 플라스틱 액세서리를 패치워크</li> <li>+ 고어드 원피스 부분은 저지 소재의 원단 사용.</li> <li>+ 짧은 랭스의 자켓 역시 저지 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대이집트의 웨세크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문화적 크로스오버와 관능미를 연출했다.</li> <li>+ 포멀(formal)한 자리에서는 위에 자켓을 코디하여 착용한다.</li> </ul>
				

용 디자인이 뒤편에서는 앞판에서보다 깊게 파여 연결된다. 현대 복식의 고어드 원피스와 연결되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등분할의 미가 보인다. 고어드 원피스는 앞 5판 뒤 5판 총 10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퍼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엉덩이부분까지는 몸에 피트되고, 허벅지에서 무릎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머메이드 실루엣의 고어드 원피스로 디자인하였다. 고대이집트의 장신구와 현대복식인 고어드 원피스의 차용으로 크로스오버를 시도하였으며 업무환경에서는 웨세크 장식의 아웃라인을 따라 파인 5부 재킷을 코디하여 착용하여 업무환경과 여가환경 각각의 T.O.P.에 적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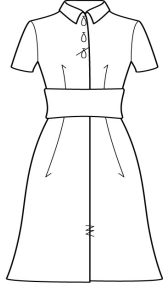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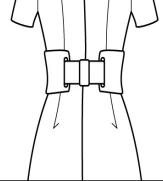
3) 디자인 3 - 그리스 민속복식 새쉬벨트와

현대복식 드레스셔츠의 크로스오버<표 3>

그리스의 민속복식인 하의 프프라, 프카마사, 상의 콘토고니 착용에 착용되어지는 와이드 벨트인 새쉬벨트<그림 12>를 활용한 디자인이다.<sup>13)</sup> 전체적인 원피스는 도톰한 소재의 드레스셔츠 느낌

이다. 그렇지만 반소매에 랭스는 원피스의 길이로 늘어났으며 A라인 실루엣으로 디자인되었다. 앞부분의 여밈은 지퍼가 B.P.점까지 위치하였으며, 지퍼의 손잡이 부분을 이집트의 터키석으로 제작된 장식석 디테일로 적용하여 단추구멍에 꿰어지게 하였다. 그 위에 동일한 실루엣의 단추 두개를 실제 단추용도로 달아 외관상 3개의 호박단추형태의 터키석 단추가 보인다. 가죽소재의 벨트는 새쉬벨트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뒷부분에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벌어져있으며 연결고리 없이 끝부분에 상하로 긴 구멍이 뚫려있다. 업무환경에서는 이 부분에 벨트형 연결고리로 연결하여 착용하고, 이브닝타임(evening time)에는 이 구멍에 스카프를 끼어 리본을 매어준다. 남성요소와 여성요소의 혼합, 그리고 문화권간의 혼합으로 크로스오버를 연출하였으며, 여가환경에서의 벨트와 스카프의 착용은 2012년 트렌드에서 제시된 여가환경의 여유로움과 여성성을 극대화 하는 효과를 지닌다.<sup>14)</sup>

<표 3> 디자인 3

디자인 3				
드로잉	도식화 앞	도식화 뒤	소재 및 색상	콘셉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셔츠형 원피스부분은 저지 소재.</li> <li>+ 암홀부터 시작되는 소매부분은 시스루 소재.</li> <li>+ 벨트는 유연하지만 두꺼운 가죽소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 셔츠와 그리스의 민속복식의 새쉬벨트 크로스오버 디자인</li> <li>+ 업무시간 등의 포말한 자리에서는 벨트 여밈을 밴드형 패스너로, 여가 시에는 스카프 로 메어준다.</li> </ul>
				

#### IV. 결론 및 제언

과거, 그리고 현재에 까지도 브랜드들이 명품 브랜드의 브랜드 이미지를 단순 차용하거나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 확립이 결여된 채 매 시즌의 트렌드를 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적절한 콘셉트 도출 방법의 모호성과 트렌드와 콘셉트를 조합시킬 수 있는 방법론의 부재로 여기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역사 속 실존인물로 다문화적 성향을 갖춘 여성으로 클레오파트라를 선정,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역사적으로 검토 시 그녀는 본디 그리스사람으로서 당시 실질적 그리스의 통치를 받던 이집트의 파라오가 되었으며 음악, 문학, 정치, 수학, 천문학, 의학 등 다방면에 능통한 지성이 풍부한 여성이었다고 현재에 전해진다. 여러 문헌들은 그녀가 외모보다는 지성미가 있는 여자였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지만 지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오랜 화장술과 이집트의 이국적 문화가 만들어진

신비스러운 느낌의 장신구와 의복은 그녀의 매력 을 더욱 부각시켰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녀에 대한 토론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져 왔지만 특이할 점은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가 이러한 논의에 큰 영향을 주어왔다는 점이다.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연구한 학자들은 작품 속에서 그녀는 셰익스피어 당대의 사회 문화적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고 상호 작용하여 새롭게 해석된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로 재현되었음을 설명한다. 메어리 해머의 주장처럼 그녀의 단일적인 판단이나 통일된 확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고대이집트의 파라오이자 로마의 영웅들을 매료시켜 파멸로까지 이끌었던 사실에서 ‘여신과 창녀의 가장 유명한 전형’의 표본으로 일컬어진다.

영상예술에 있어,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테다 바라, 콜베르, 비비안 리 등 수많은 유명 여배우를 탄생시키며 발표되어온 클레오파트라 소재는 1963년 미국에서 조셉 L. 멘케비츠가 감독한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가장 화려

하게 조명되었다. 당대 최고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출연, 영화 속에서 이집트의 복식인 칼라시리스, 쉬스스커트, 튜닉 뿐 아니라 로마식 투니카 등을 현대적 아름다움으로 소화한다. 조셉 L. 멘케비츠는 이 영화를 통해 클레오파트라를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 지도자로서 표현하였고 미녀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출연은 미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는데 한몫을 하였다.

문학적 측면과 영화의 표현방식, 그리고 고증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도모한 여성이자 남성을 능가하는 리더십을 갖춘 여성으로, 또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동시에 내면과 외면의 아름다움을 겸비한 여성으로 이미지를 도출하여 첫째 크로스오버 이미지, 둘째 당당한 페미니스트 이미지, 셋째 관능적 여성의 이미지를 도출하였고, 이를 적절히 융합하여, 매력을 당당히 어필할 줄 아는 여성을 위한 다목적 이브닝웨어를 디자인하였다. 고대 이집트복식인 쉬스스커트의 응용, 웨세크의 응용 뿐만 아니라 크로스오버 다목적 이브닝웨어의 콘셉트 도출하에 진행된 그리스의 새쉬벨트와 터키석을 응용한 이브닝웨어까지 디자인하였다.

콘셉트 도출을 위해 하나의 키워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역사적 조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성을 정립해야 하며, 여기서 도출된 콘셉트는 반드시 선행 트렌드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물과 합성되어 디자인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디자인 콘셉트의 확립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디자인의 정체성 및 콘셉트만 고수된 채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오브제로서 상품성을 잃어버린 채 예술표현으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각 브랜드 및 디자이너들은 브랜드 콘셉트 혹은 디자인 콘셉트와 트렌드를 적절히 접목시키는 안목이 요구되며, 이는 콘셉트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콘셉트의 구체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클레오파트라 이미지를 콘셉트로 한 디자인

을 연구하였지만 좀 더 다양한 콘셉트를 접근하는 예시를 들어 도식화되고 구조식적인 방법론을 후속 연구한다면 많은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콘셉트 설정 및 디자인 전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제안한다.

## 참고문헌

- 1) 윤덕훈, 조규화 (2009). 영화 ‘클레오파트라’복식과 그 상징성 연구, 패션비즈니스학회지, 13(1), pp.17-33.
- 2) 위의 논문, p.19.
- 3) 위키백과(검색어: Cleopatra), 자료검색일 2011. 5. 14. <http://ko.wikipedia.org>
- 4) 이순녀 (2005). 고대이집트 미용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미용학회지, 1(1), pp.107-109.
- 5) 조윤희 (2009). 세익스피어의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와 뮤지컬 ‘클레오파트라’의 비교 연구, 한국세익스피어학회지, 45(3), p.408.
- 6) 김경혜 (2006).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에 나타난 페미니즘 전략과 그 한계, 한국세익스피어학회지, 42(4), p.641.
- 7) 윤덕훈 (2009). 클레오파트라 복식의 상징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5.
- 8) 손연석 (1997). 모던과 포스트모던 도자 제품디자인의 정량적 분석에 의한 비교 및 해석에 관한 고찰, 한국디자인학회지, 21(-), pp.18-19.
- 9) 윤덕훈, 조규화. 앞의 논문, p.53.
- 1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1. 5. 10. <http://www.samsungdesign.net/trend>
- 11) 쉬스스커트(sheath skirt): 히프 라인이 확실하게 드러날 정도로 꼭 맞는 스커트. 히프의 폭보다 끝단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짐. 고대이집트의 쉬스스커트는 하이웨이스트에 어깨끈이 부착된 형태가 많이 보임.
- 12) 웨세크(wesekh): 폭이 넓은 칼라로서 원통형 구슬을 크기와 색깔별로 수직배열하고 양끝을 반원형이나 조류의 두상 형태로 마무리한 전형적인 이집트 장신구 중 하나.
- 13) 라사라교육개발원 (2002). 세계 각국의 민속의상, 서울: (주)라사라패션정보, p.181.
- 14) 김철순, 유희정 (2006). 1996년 이후 패션 콜렉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14(3), pp.463-464.

# Research of Modern Fashion Design using the Theme of Cleopatra

Lim, Byung Soo · Kim, Jung Hee<sup>†</sup>

Master's course,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shows the use of Egypt's last Pharaoh, Cleopatra VII, as a motif in fashion design. It will sample and present the method of concept deduction during the process of design and aim to present a rational method of creation of a main concept of fashion design by a designer. First of all, Cleopatra was selected for a theme with a multi-cultural code. Cleopatra's image during the Hellenistic period was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her present image. Then, how Cleopatra would look if she were reborn in the modern era was studied. Various possible images were extracted and organized into 3 different directions, and fashion trends of 2012 were analyzed for application in the process of fashion goods production. The three images that were deduced from Cleopatra were a crossover from her multi-cultural image, an image of feminist leadership and intelligence, and a charming, beautiful and sensual image. By applying the three images, the following fashion designs were presented. First, a crossover-designed tailored jacket and ancient Egypt sheath skirt, second, an ancient Egypt wesekh crossed over with a gored dress, and third, a Greek sash belt crossed over with a modern dress shirt. Selection of key words during concept deduction establishes semanticity that is widely used to study historical background. The concepts deduced in this research were combined with information obtained from previous trend investigations and expressed through design. This research covers the process of concept deduction, trend investigation, trend application and fashion design.

Key words: crossover, feminist, voluptuous beauty, Cleopatra, concept deduction